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



조현종

조선후기 선비들에게 절의는 지향하는 전범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었으며, 그는 서릿발 같은 기개와 지조로 일관한다

하서(河西)는 김인후(金麟厚-1510-1560)의 호이다. 하서가 우리 고장 장성 출신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문묘에 배향된 동국사립현 가운데 유일한 호남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찍이 선생은 출세와 권세를 멀리하고 오로지 학문으로 일관하였다. 50년이라는 일생 동안 관직에 나가있는 기간은 너무나 짧아 3~4년에 불과했다. 1540년 31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부모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을 지원하여 낙향하기까지이다.

선생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최대 관심사인 기(氣)와 도(道) 그리고 이(理)와 기(氣)의 상호관계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또 그의 천명도는 후에 퇴계와 고희봉에게 승강에 이루어진 유명한 편지토론편 사철론쟁(四七論爭)의 단서가 되었다.

대의 제도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예학연구가 일어나게 한 사람도 하서이다. 15세기에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던 성리학이 당대에 최고로 융성했던 것도 하서와 무관하지 않다.

하서의 학문세계는 성리학에 그치지 않는다. 나이 6세에 하늘의 이치를 읊은 시를 짓고 8세때 이미 천하문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하서는 면앙정 송순의 문인이고 송강 정철의 스승으로 양계보를 잇는 시문학에도 발자취를 남겼다. 소쇄원 주인 양산보나 미암 유희춘 등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들과는 사돈간으로 교류하였다.

철학과 시문을 겸비한 하서의 선비정신은 절의로 대표된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절의는 지향하는 전범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었으며, 그는 서릿발 같은 기개와 지조로 일관한다. 하서는 기묘사화의 장본인인 증중에게 사화에 관련된 이른바 기묘명인의 신원을 상소한다. 계속되는 사화의 와중에서 임금에게 글을 올린다는 것은 건 목숨을 건 의로운 선비가 아니고 선 불가능한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서는 착종(錯綜)되어 있고, 호남은 하서와 단절되어 있다. 역사 속에서 호남이 총질과 의료의 고장이며, 한말 의병운동의 본산으로 항일독립과 민주화의 준령인 것은 어쩌면 숙명이며 시대적 소명일지도 모른다. 일컬어 호남정신은 그리하여 오랜 동안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 즉 휴머니즘으로 변용되었다.

호남정신을 얘기할 때 그 정점은 큰 선비 하서가 있다. 그를 기리는 장성의 필암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도 끄떡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텨낸 호남에서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며 성장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필암서원에 한번 가 볼 일이다.

이제 세상으로 나온 하서를 뵈 수 있으리라! <국립광주박물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전남, 중국시장 공략대책 서둘러라

한국과 중국이 24일 국교 정상화 15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관계는 수교 15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한중관계의 변화상은 각종 수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992년 수교 당시 50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지난해 1천343달러로 27배나 증가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곤란하다. 광주와 전남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지리적 여건 등 중국교류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인접한 광주와 전남이 정작 '수교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286만 5천명 중 광주공항 입국자는 1천900명에 불과했다.

경제분야도 기대 이하이다. 전남도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1%에 달했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에 집중됐다고 한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곤란하다. 광주와 전남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지리적 여건 등 중국교류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구직자 절반이 취업위해 상경한다니...

지방출신 20, 30대 구직자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경한 적이 있다고 한다. 반면 수도권 출신 구직자 절반 가량은 지방 소재 대기업보다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가 지방출신 20, 30대 구직자 1천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0.4%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이 지방 구직자가 서울을 선호하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구직자 44.6%는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가지 않고 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시장에서 '지방 기피, 수도권 쏠림' 구조가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게 문제다. 관청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고급인력의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지역 내 인적자원의 질 하락과 지방산업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일자리 창출이아말로 국가 균형발전의 첨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민철.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을 둔 가정은 거실을 걸을 때 발꿈치를 들 정도로 '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온 가족이 총력을 기울인다.

기고 김일동.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의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수능증후군 퇴치하기. 있다. 수능증후군이란 오랜 시간 공부와 씨름하며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눈이 침침하고 뒷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며 허리가 아픈 증상이다. 수능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기 때문이다.

전역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군복무 기간을 줄여서는 안된다. 국가의 국방력이 약해지고 안보가 불안하여 국가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군복무를 일정한 부대에서 교육과 훈련, 작전경계 등 엄격한 규율에서 지시명령을 이행하며 군복무에서 피땀 흘린 선배 전우들의 군인정신은 높이 평가하며 국가에 대한 봉사자이나 국가의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전역자에게 특별한 예우는 아직 없다.

친환경적 주택단지·도로 개설이 온난화 늦추는 길. 우리는 어떠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가? 도심속의 생활환경은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에 점점 아스팔트도로로 주차장 마저 포장되어 있어 흙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노인들 다루기 쉬운 경운기 나왔으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돼지 10마리를 데리고 장에 가는 것보다 경운기 한 대를 끌고 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을 이해할 것이다.

기상예보 논란. 우리는 우선 장사와 쫓긴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컸었다. 이 늙은 어머니는 햇볕이 쬐거나 비가 쏟아지는 날이나 두 아들의 장사 때문에 매일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짓는다.

無等鼓. 우리는 우선 장사와 쫓긴 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컸었다. 이 늙은 어머니는 햇볕이 쬐거나 비가 쏟아지는 날이나 두 아들의 장사 때문에 매일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짓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容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